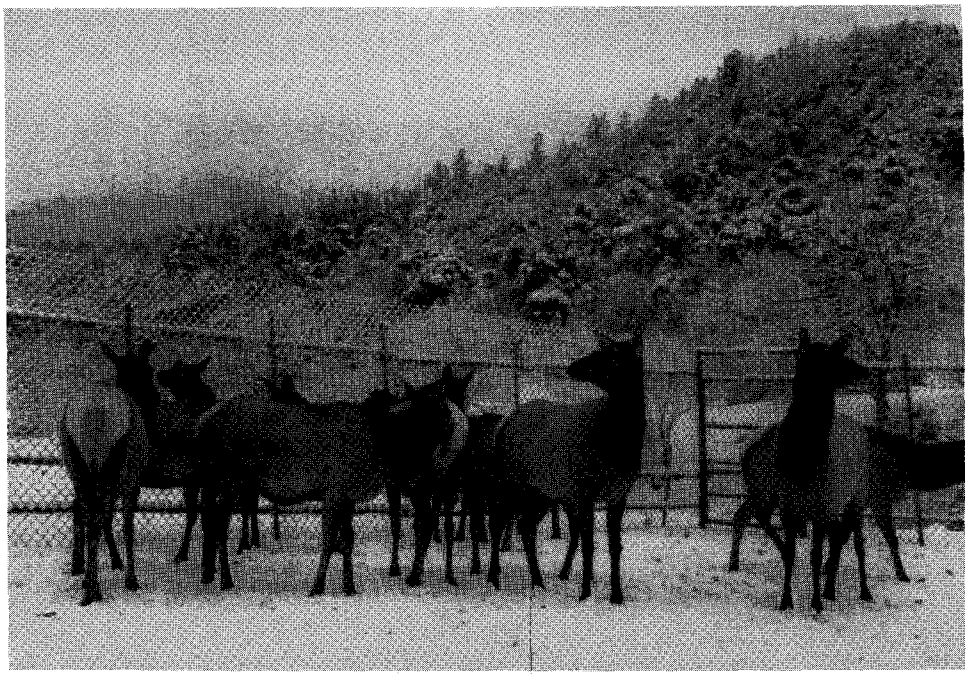
◇투 고◇

우수사슴이 되기까지



94 우수사슴과 임신된 암사슴 — 다래엘크사슴 목장

사슴을 처음 시작하던 80년대에는 우수사슴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엘크사슴을 사육했는데 지금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보면 너무도 많은 모험을 했다. 사슴을 처음시작하면 누구나 한두번은 이용을 당하고 저질 사슴을 고가로 구입하지만 나만큼 많은 수난을 겪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사슴목장이 흔하지도 않았고 양록정보를 제공하는 월간지도 없었으니 사슴을 구입하러 이사람을 따라가면 저사람을 연결하고 저사람이 또다른 사람에게 연결시키니 사슴한마리 사자면 중간에 사람이 둘셋이 연결되기도 했다.

내가 처음 시작할때만해도 교잡이 무엇인지 순종이 어떤것인지 모르는 캄캄한 밤중속에서 중개인이 사주는대로 가져다 길러야 했다. 이익을 속히 보려고 암사슴 성록을 구입하여 길러보면 새끼를 못낳는 불임사슴일 경우가 많았다.

피땀흘려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곡매상 좀하고 고추농사 뼈빠지게 지어서 기백만원 근근히 장만하는등 일년내내 농사지은 소득을 다합쳐야 엘크새끼 한마리를 못살정도였으니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

서 사채까지 얻어 가지고 돈천만원 겨우 장만하여 엘크새끼 한마리 사다 애지중지 온갖정성을 다하여 키워 놓고 한 일년이나 된 뒤에 전문가를 불러다 보이면 70% 잡종이니 80% 잡종이라는 소리를 듣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조상대대로 물려준 산골짜기 논 몇마지기와 밭 몇마지기를 다 팔아서 사슴에 집어넣고나니 가정살림은 거덜이 날지경이고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괴로운 나날이 연속되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수난의 길을 걸으면서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고 꿋꿋한 일념을 가지고 지금 이자리까지 온 내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다행한 일이다.

전국 사슴목장을 물어서 물어서 돌아다니며 방황하다가 80년대말경에 부산에서 정종두씨를 만나니 나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용기를 가지라"고 하며 희망을 주었다. 정사장을 따라서 안내된 목장이 부산의 산성목장이었다. 사슴장 입구에 들어서니 사슴들이 키가 훤칠하고 목덜미가 검은 엘크성록 30여두가 사육되고 있었다. 그중에서 암사슴 4두 종록 1두를 마음대로 골라서 가져가라는 정사장의 말에 나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그때가 4월초로 생각되는데 암사슴들은 젖이 퉁퉁 불어 있고 종록은 녹용이 주먹만큼 자란 상태였다. 지금까지 전국을 몇번 순회하면서 돌아다녀 보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좋은 혈통의 사슴을 만났다. 그런데 돈이 문제였다. 사슴값 5천4백만원을 구하려고 친구란 친구는 다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려고 헤매였으나 어느 누구에게서도 단돈 기백만원도 빌릴수가 없었다. 하는수없이 숙부를 찾아가 사정해 전답 등기를 빌려서 농협에 담보를 설정하여 담보대출로 사슴대금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때에는 사슴에 미쳐서 남의 사채 같은 것은 겁도 나질 않았다.

그해 5월20일경에 부산 삼성목장에서 구입한 암사슴 4마리가 모두 순산을 했다. 숫사슴도 6월중순경에 절각을 했는데 4년생으로부터 15kg의 녹용이 생산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우수한 혈통의 사슴을 사육해야 된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다. 그런데 인접한 충청도 부근과 우리 상주지역에서는 교잡종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유인즉 교잡종은 순산을 잘하고 녹용을 절각하면 당년에 본전까지 나온다는 이유로 모두 교잡종에 쏠리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교잡종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순종 엘크만을 고집하며 우수종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중 용인에 "청평농장" 김은성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의정부 부근에 암사슴2두 숫사슴1두가 나왔는데 20년 가까이 사슴유통을 했지만 이런 순종엘크는 처음보았다고 하면서 나에게 권해서 그 사슴을 주인이 요구하는대로 최고 금액을 주고 구입했다. 그 숫사슴을 그해에 절각을 했더니 5년생에서 16kg가 생산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사슴중에도 고능력 혈통의 사슴들이 어쩌다 드물게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남의 말만듣고 구입을 하여 온갖정성을 다해 길러서 절각을 해보면 겨우 7년생을 기준으로 10kg에서 12kg이 고작이었다. 어느해이던가 일년에 두번 절각을

하고 녹혈을 무리하게 채취한뒤 팔려는 사슴을 모르고 구입해 겨울내내 비실비실하는 사슴을 기르느라 고생도 많이 했다. 그 당시만해도 암사슴에게는 새끼만 잘 낳아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암사슴 우량종에는 모두가 별관심이 없었다.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밭토양이 안좋으면 그 종자는 좋은 결실을 할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진리이다. 그래서 나는 90년대부터 새끼 몇마리 출산한 것을 매매하고, 녹용을 팔고, 농사지어서 나오는 수익금을 모두 합쳐서 해마다 암사슴구입에 심혈을 기울였다. 어디에서 목장을 정리한다는 연락이오면 불원천리하고 달려가서 그 목장에서 제일 능력이 우수한 암사슴 한두마리만 골라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지불하고 고가로 구입을 하기 시작했다. 우수한 자록을 생산하려면 종록만 좋아가지고는 안된다. 암사슴도 체구가 크고 목덜미가 검고 등은 회색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첫째는 꼬리가 전혀 없을 정도로 짧아야 된다. 이런 암사슴에다가 우수한 혈통의 숫사슴의 교미가 이루어지면 틀림없이 우량한 자록이 태어난다. 암사슴 고르기위해 삼사년을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발한 암사슴이 이제 겨우 18두에 불과하다.

내가 지금까지 사슴을 기르며 전국을 다녀보면 녹용이 오백냥 나온다는 숫사슴이 무척 많이 있다. 하지만 오백냥짜리 녹용을 좀 보자하면 한사람도 녹용을 내어놓지 못한다. 말이 오백냥이지 85일 기준으로 절각을 하여 오백냥 생산되는 사슴은 전국에서 두세마리에 불과할 것이다.

나는 드디어 지난 94년에 우수사슴 심사를 받아 보려고 양록협회에 우수사슴심사 신청을 하고 월간양록 94년 5월호에 우수사슴 감정공고를 냈다. 이 광고를 읽고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30여명의 양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절각이 진행되었다. 녹용 오백냥을 자신했었는데 495냥에 그치고 말았다. 그래도 협회에서 오신 사무국장님과 타지에서 오신 많은 양록인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나는 금년에도 우수사슴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94년 다래1호사슴에 이어서 금년에는 다래2호사슴을 심사 받아 볼 것이다. 이때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많은 양록인을 초청하여 지켜보는 가운데서 절각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꼭 20kg이 넘는 녹용을 생산하고야 말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캐나다의 우수한 엘크종록은 4천5백만원이 넘는다고 하고 뉴질랜드의 레드디어 종록도 특수한 것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선에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나라 양록도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멀지않은 장래에 외국산 녹용은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하락되리라고 본다. 국산녹용의 약효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으니 곧 국산녹용이 빛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 침체된 양록경기를 탓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사슴을 사육하면 땀을 흘린만큼의 충분한 보상이 돌아 올 것이다.

다래엘크사슴목장 박래홍